
서대문구의회 소식지 편집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2020. 12

의회사무국
(홍보팀)

「서대문구의회 소식지 편집 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 근거법규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 심의기간 : 2020. 12.21.(월요일) ~ 12.23.(수요일)

☐ 심의방법 : 서면 (회의자료 송부 후 서면 의견서 접수)

☐ 서면심의 진행 사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3판)」(행정안전부)

- 내·외부 회의 및 보고는 가급적 영상 ·전화 ·서면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활용

*회의 ·위원회 ·보고회 ·간담회 등 명칭 불문

☐ 개회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 (7/7) 및 (7/7)

☐ 위촉명단

직책	성명	성별	주요경력
위원장	이종석	남	의회운영위원장(당연직)
위 원	이동화	남	구의원
위 원	주이삭	남	구의원
위 원	오병현	남	(현)서대문인터넷뉴스 대표
위 원	임현진	여	잡지 및 소식지 편찬
위 원	조원영	여	미술 전공
위 원	최진석	남	디자인

☐ 참여명단

의회운영위원장(이종석),

편집위원(이동화, 주이삭, 오병현, 임현진, 조원영, 최진석)

☐ 안 건

- <서대문구 의회소식 5호>구성과 디자인 등에 대한 검토 및 심의
- <서대문구 의회소식>에 대한 기획 및 편집 방안 제시

☐ 개별의원 의견

<000 위원>

- 2020년 한 해 동안의 주요 활동은 사진으로 구성한 것이 재미적 요소를 둔거 같다.
- 다만 사진 구성 시, 의정활동 중요도에 따라 사진 크기 등을 달리하는 것도 좋을거 같다.
- 이번호 전체 주제가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맞이하는 서대문구의회'인 만큼 표지를 통해서도 이를 잘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 앞으로도 모든 의원이 참여한 의정 활동을 골고루 잘 소개해 주길 바란다.

<000 위원>

- 서대문구의회 의원들이 1년간 발의한 조례를 섹션별로 구성해 소개한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 실제 이런 입법 활동 사항은 주민들은 잘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데, 복지, 안전 등 분야별로 나눠서 구성하니, 주민들이 더

쉽게 알 수 있을거 같다.

- 앞으로도 모든 의원들이 활동이 고루 담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000 위원>

- 표지에 의장단만 색을 달리해서 구성한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위치를 좀 더 변경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 의원 발의 조례, 빠진 부분 없는지 크로스 체크해 주길 바란다.
- 행사 참여 사진 등도 있는데, 코로나 시국인 만큼 아예 책자에도 방역수칙 등을 엄수해 참석한다는 안내 문구를 적는 것도 좋아 보인다.

<000 위원>

- 주민들이 의회와 구의원 의정활동에 관심이 많아진 것이 사실이다. 그만큼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책자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 주민들에게 직접 배부는 할 수 없으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민원실이나 동 주민센터 등에 더 적극적으로 비치해 주길 바란다.

<000 위원>

- 올 한 해 동안의 서대문구의회 의정활동 핵심 내용이 깔끔하게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주민들이 큰 제목 등만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만, 추후에는 표지와 전체 디자인 색감 선정 시, 계절성을 반영하는 것도 제안한다. 한 가지 톤으로 유지하는 방법도 있지만 계절이나 사회 상황 등을 고려해 색감을 구성하는 방법도 좋을거 같다. 예를 들면 겨울에 나오는 경우 조금 따뜻한 느낌과 톤이 유지 될 수 있도록 하면 주민들에게 더 친근한 소식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000 위원>

- 지난호에 비해 내용 구성이나 디자인 적으로 많이 정리된 느낌이다.
- 아직은 초기인 만큼 차츰, 전체적인 분위기나 일관된 톤 등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선거법으로 인해, 직접 주민에게 배부 할 수 없는 점이 아쉬웠는데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청은 받을 수 있다니 이를 적극 홍보해줬음 한다.
- 이번호에도 마지막 페이지에 관련 안내 자료가 있던데.. 앞으로도 꾸준히 신청 안내 등을 홍보해야 할거 같다.

<000 위원>

- 전체적인 내지 구성과 디자인은 깔끔하게 진행된 것으로 평가한다.
- 페이지에 한계와 함께 그 안에 15명 구의원들의 소식을 전달해야 하다 보니 구성 등에 다양한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본다. 지금처럼 일부 페이지는 개별 의원 활동을 집중해서 소개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 콘텐츠 구성에는 어느 정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을 늘 염두 해 두었음 한다.
- 표지는 소식지의 첫 얼굴인 만큼, 복잡하지 않게 단순 명료하지만 그 호의 주제를 잘 드러내는 방법을 찾길 바란다.
- 차후에는 표지 톤이나 분위기를 좀 더 통일하는 것도 방법일거 같다.